

# 기억·치유·고발...항쟁 이후의 삶 조명

## 문화로 만나는 오월

### 4 5·18 그린 영화들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

17일 '힌츠펠터 스토리' 개봉

광주독립영화관 '38주기 특별전'

18~21일 '실종' 등 7편 상영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한 장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생존자의 아픔을 그린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한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는 1980년 5월의 상처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정신장애 엄마 명희(김부선 분)를 이해할 수 없었던 딸 희수(김꽃비 분)가 잊혀진 진실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휴먼 드라마다. 김꽃비, 김부선, 이한위의 참여로 영화의 깊이를 더했고 전수현, 김채희, 김효영, 한다영 등이 출연한다.

영화는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기복 감독이 실제로 보고 들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9년에 발생했던 '이철규 변사사건'이라는 두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결합,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시간의 간극과 상관없이 유효하며, 국가폭력과 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화는 또 현재와 과거의 시공간을 교차시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1980년 5월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오는 17일 외신 기자의 눈으로 1980년 광주를 바라본 다큐멘터리 '5·18 힌츠펠터 스토리'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봉한다.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로 알려진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펠터다. 영화는 힌츠펠터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세 번의

집행을 통해 광주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힌츠펠터는 이후 1986년 11월 광화문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도중 사복경찰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이 때의 부상으로 얻은 지병으로 2016년 생을 마감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80년 5월 광주의 처절했던 민주항쟁의 모습을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관GIFT(관장 윤수안)은 광주민주항쟁 38주년을 기념해 18일부터 21일까지 '5·18 38주기 특별전'을 마련한다.

18일 개봉하는 박성배 감독의 '실종'은 2004년 제5차 보상법에 맞춰 보상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5·18 행방불명 가족회'의 행보를 추적하는 영화다. 영화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실종된 5·18 정신을 고발하고 있다.

'더 배틀 오브 광주'는 19일 만날 수 있다. 영화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10일간의 항쟁을 극화했다.

같은 날 개봉하는 '광인'은 조재형 감독의 '맛의 기억'과 윤수안 감독의 '떠도는 땅'으로 구성된 영화다. '맛의 기억'은 대구에서 음식기자로 활동하는 혜진(정경아)이 흥어를 취재하러 광주에 와서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활약했던 아버지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떠도는 땅'은 5·18의 상처 속에서 광주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권력을 보여준다. 정경아, 신동호, 윤희철, 김

호준 등 지역에서 연기 인생을 펼쳐온 배우들을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민중의 입장에서 '오월 광주'를 바라본 '오월 사랑'은 20일 만날 수 있다. 항쟁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나눴던 '오월 여성'들과 시민군들의 항쟁 당시의 이야기와 현재 삶까지를 담아내며 민주주의 역사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개봉하는 김경주 감독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은 '오월 여성'들의 항쟁 당시의 경험과 현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를 통해 '오월 여성'들 중 가두방송을 한 것이 죄가 되어 옥고를 치른 차명숙씨를 만날 수 있다. 차명숙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군부의 고문이 극에 달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영화 '광인' 상영이 끝난 후에는 배우 정경아와 신동호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무료 상영. 문의 062-222-1895.

5·18 당시 광주 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뒤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수부대의 모습을 그린 영화 '기억하라'는 18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상영된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인 '인생은 나그네길' 영상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작된 이 영화는 영화배우 송영창 씨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이 동참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정국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지난해 12월 광주극장에서 시사회를 한 후 추가 촬영과 재편집 등을 통해 새롭게 창작됐다.

최근 제38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는 2017년 5월 어느 봄날, 무등산 중봉 가는 길에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 인근 숲 속 여기저기를 파헤치며 뾰족을 찾는 중년 남자(공수부대 장교 출신)와 5·18 당시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선 치매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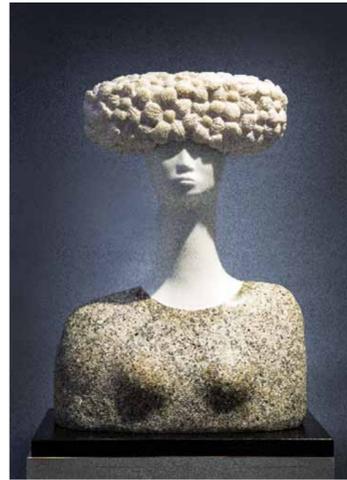
또 영화의 일부인 인터뷰를 엮은 단편다큐멘터리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이 18일 오후 2시 KBS 1 열린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22분으로 구성된 영화 속의 단편극영화 '기억하라'는 5·18 전북 영화제 개막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문의 010-3615-9480. /전문기자 ei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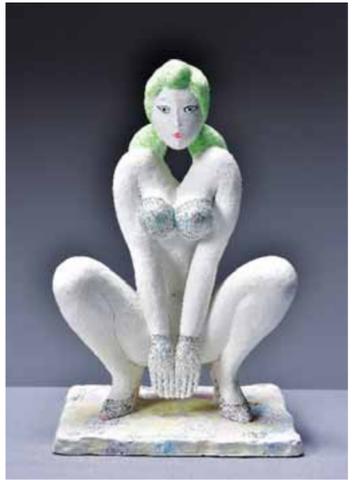
영화 '기억하라'의 주인공 송영창.



위르겐 힌츠펠터



전범수 작 '꽃이 된 여인'



문옥자 작 '콘테스트'

## 40년 남도 조각 변천사 한눈에 본다

### 남도조각가협회 기념 전시회

###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 17일~30일...회원 51명 참여

'남도 조각의 역사를 한 눈에 본다.' 지난 1978년 창립총회에 이어 이듬해 창립전을 가진 '남도조각가협회'는 남도 조각의 산증인이다. 학연, 지연을 떠나 광주·전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조각가들이 의기투합해 출범한 남도조각가협회는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며 지역 조각계를 견인해왔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남도조각가협회(회장 전범수)가 기념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미술협회(회장 박수봉) 기획총대전으로 남도 조각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다. '조형적인 미의 근원을 탐구하고 창조적인 작업을 전개,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족미술창달에 공헌한다'를 목표로 삼은 남도조

각가협회는 고경수 전 조선대 교수를 회장으로 고복령, 김왕현, 김철수, 김행신, 문옥자, 송미숙, 오명희, 윤영철, 정윤태, 정형수, 조숙의, 고(故)조판동 등 모두 13명의 조각가들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기획전의 제목은 '1978-2017'전으로 이제는 60~70대가 된 창립회원부터 한참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며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찾아가는 젊은 신진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했다. 작가들은 나무, 대리석, 청동, 합성수지 등 다채로운 소재를 활용해 추상과 구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개성넘치는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51명의 회원 작가들이 참여한다. 고웅, 김기범, 김기현, 김대길, 김성식, 김성욱, 김세진, 김용, 나한균, 류종원, 문옥자, 백경원, 박광구, 박성호, 이기원, 이상필, 이은희, 이인호, 이준재, 장규오, 장용훈, 전범수, 정숙경, 정윤태, 정준표, 조대원, 조우나, 조은경, 주라영, 주미희, 최규철, 최미애, 최재덕씨 등이다. 초대 일시 17일 오후 6시. 문의 062-222-37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18일 진중권 '현실의 계입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 '세상을 바라보는 눈' 5월 행사가 오는 18일 오후 3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문화평론가로 활동중인 진중권 <사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진행하며 주제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로-현실의 계입화'다. 진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미학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앞으로 변화되는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는 인류문화의 기반이 '놀이'라는 유희과정에서 발전했으며, 종교화를 거치며 유희적 요소가 열

어지고, 근대화를 통해 유희가 상실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오는 6월에는 이항준(호 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씨가 강의를 진행하며 7월 이도하(한국전통문화대 교수), 8월 고미숙(고전평론가), 9월 조송수(조선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하정웅미술관에서 현재 '오일-Zero(無) 외침'전을 진행중이다. 문의 062-613-71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가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버스킹'**  
남편 문화로  
자리잡다

지역 축제, 버스킹으로 매력 충전  
광주프리마켓페스티벌 4월 개막  
'힐링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커 사랑 그린 영화

**Basking**

5·18 기억  
계속 불러야 할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예행이 만난 이사람  
'신형 잠수함' KIA타이거즈 꽃미남 사이드암, 박정수

전시 리뷰  
<호남의 현역 작가들 II>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합동전시

노중훈의 꿈의 여행  
운명적인 사랑과 맛있는 음식의 도시  
미국 시애틀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북 로맨스' 커뮤이 운영하는  
영국 프림로즈힐 북스 & 커나한 북스

**매양 초대석**

**『이순신의 7년』 완간한 작가 정찬주**  
"인간 이순신" 숨결 담았어요"

문화 화제  
윤곽 드러낸 2018광주비엔날레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7)  
'월북시인' 봉인 문 첫 문학관 오장환 문학관

트렌드 따라잡기  
돌맹이 키워 볼래요? 진화하는 혼자 놀기

지역의 문화 행사  
눈부신 전남의 5월 축제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소설가 권터 그라스 vs. 극작가 하이너 뮐러

매양수신부 공동 기획-한국의 국가어항  
소박함과 화려함의 남해안권 국가어항들

전통, 역사와 마주하는 전남도시  
나주羅州

향포동에 타고 시간 여행  
- 목사굴 오월의 푸르름 속으로